

한국의 대학문화에 대하여

보통 “대학”이라는 곳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, 모든 분야에 대한 자신의 선택으로 수업을 받게 된다. 1학기동안 내가 배우고 싶은 학문을 선택하고, 내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만큼 스스로 학문을 쌓아가는 시기이다.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시기는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준비단계의 아주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.

중학교와 고등학교와는 너무도 다른 흥미로운 학문들이 많고, 갑자기 생긴 많은 시간들을 대학생들은 활용하는데 혼란을 느낀다.

대학의 신입생환영회는 매년 3월이면 뉴스에 나오는 큰 사건이다. “선배들이 먹이는 많은 양의 술을 먹어서 죽는 신입생 사망 사건”이 대표적이다. 과연 이것이 선배들의 후배에 대한 “맞이”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.